



협회뉴스 강릉지부, 남쪽으로 떠난 보은의 봉사



강릉지부(지부장 최홍섭)는 1월16~17일 회원 40여명이 강릉시 종합 자원봉사 센터에서 실시한 “남쪽으로 떠난 보은의 봉사활동”을 하였다.



강릉지부는 2002, 2003 태풍 피해 때, 전국의 자원 봉사자들에게 큰 도움을 받은 강릉시민들이 전라도 폭설피해지역에 보은의 자원봉사 활동에 동참하였다.



이번 폭설로 피해를 입은 전북 고창군 흥덕면 김용대씨 농장에서 폭설로 무너진 비닐하우스 철거 봉사활동 등을 실시했다.

자원봉사자들은 “지난 태풍피해 때 전국의 봉사자들에게 큰 도움을 받아 어려움을 빨리 극복할 수 있었다”며 “보은의 의미로 폭설 피해를 입은 전북지역 돕기에 나서게 되었다”고 말했다.

이번철거 봉사에는 기술과 장비를 보유한 전문 봉사단(전국 보일러설비 협회)이 참가해 폭설피해를 입은 농가들의 복구활동에 큰 도움이 됐다.